

**말하라 (사도행전 18:1-11)**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 9절은 “두려워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답을 주셨다.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답이었는데, 인간이 이것을 못한 것이다. 그 후에도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약이었다. 한번 더 주신 것이다. 이제는 인간이 깨도 깨지지 않는 언약을 주셨다. 전에는 인간이 깨면 깨지는 언약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언약이라고 한다. 사람의 행동이나 노력이 상관 없는 언약이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알고 때로는 감사해서 울고 그런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이 언약에 대하여 설명한 책이 있다. 그것이 성경이다. 왜 이것을 설명했느냐면 하나님이 이 기준으로 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이유와 방법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없으면 죽는 것이다. 땅에서도 굉장하 힘들다. 답이 없다. 기댈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책대로만 하면 모든 저주에서 반드시 나오게 된다. 참 감사하고 간단하다. 이 책대로만 하면 모든 저주에서 반드시 나오고 결국 정복하게 된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 조건은 이 책대로 하는 것이다. 간혹 역사상에 이 책대로 산 사람들이 있다. 아주 시대적인 인물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도 완전하지는 않았다. 이 책에 있는 하나님의 지침대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일이 평생을 드렸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손해가 아니라 굉장한 것을 얻는다. 인생을 소멸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정복하는 것을 거기서 얻는 것이다. 시대적인 증거들이 일어났다. 이 사람들의 평생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다. 사무엘, 다윗이야기를 길게 써 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이야기 길게 써 냈다. 세밀하게 읽어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살라야. 그러면 이 사람처럼 된다는 말이다.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이야기 길게 써 냈다. 참고하고 이대로만 하면 너도 이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다. 평생에 일어났던 일과 그 때 일어났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내 뜻은 이것이니깐 내가 이렇게 살라야.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예외없이 시대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도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지침이다. 대부분, 그냥 이야기에 빠져버리고 지나간다. 이야기 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살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시대적인 증거 얻을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약속이다.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살아야 할 하나님의 지침을 이미 받았다. 그것이 부활 메세지 4개이다.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해야 할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세상과 사단을 정복해 가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여기에 평생을 드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이다. 답은 이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시간은 걸린다. 왜 시간이 걸리겠는가? 내가 이 말씀처럼 되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이 들어와 내 것이 되는데 나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 사람에게는 생각이 하나밖에 안 들어온다. 하나님하고 하나되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짜이다. 잘 생각해보고 개인적으로 결정하라. 메시지는 전체로 다 나가지만 잡는 사람은 개인이 혼자 잡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 전혀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도 그 때와 똑같은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네 개의 메시지가 내게 언약이 되려면 필요하게 그리스도 능력이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내 것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안된다. 원인은 한 개 딱 있다. 사단이다.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서 복음의 첫 번째 내 아들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일은 노역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축복이고 권세고 능력이다. 그리스도 누리면 응답 받는다.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면 더 큰 응답을 받는다. 여기에 진짜 생명 걸겠다 하면 땅끝까지 가버린다. 그리고 성경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간단하다. 문제는 뭐냐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 해야 한다. 영적 전쟁. 이것 뿐이다. 공부는 그 다음이다. 사업할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

다음이다. 목표는 하나 뿐이고 가치 있는 것도 하나 뿐이다. 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 위해 전부 다 주겠다는데 왜 이걸 안하고 다른 걸 하냐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눈 뜨라는 것이다. 눈이 맘대로 안 떠지니까 그리스도 부르면서 전쟁 붙어야 한다. 진짜 이 눈을 뜨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이다. 십자가의 보혈, 그 권세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냥 응답만 받는 게 아니다. 정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응답 안와도 괜찮아. 정복.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는 축복이 없는 것이 없다. 마음에 담기 바란다. 답 만나면 방향한다. 그 기간도 필요하다. 답나야 하니까. 버릴 것 하나도 없다. 그러나 목표는 항상 거기에 가야 한다. 발견하고 가슴에 언약이 되는 축복이 되기 바란다.

1. 말하라.

9절에 나온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은 아무도 너에게 손댈 자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이 성안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해야 안 되겠는가? 복음 가진 우리가 잠잠하면 세상은 죽는다. 우리가 만일 잠잠하면 세상이 살아날 길이 하나도 없다. 전부가 지옥으로 다 가버린다. 세상에 만일 교회가 없고 전도자가 없으면 세상은 완전 사단 천지가 되어버린다. 부족해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만큼이라도 지켜주는 것이다.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완전 사단 세상이 되어 버린다. 가장 무서운 사단의 세상은 아무 것도 표 안나고 조용히 전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아주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나중에 가보니 지옥이다.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없다. 이게 가장 무서운 사단 세상인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생각이라도 해 볼 것이다. 그게 아니고 편안하게 잘 산다. 아이들도 너무 잘되는데, 죽어보니 지옥이다. 세상은 교회를 비롯지만 교회가 없으면 그들이 먼저 사단에게 저주 받는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싸움을 하겠는가? 그래서 답은 복음이라는 것이다. 복음을 알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하셨다. 전도 안해도 하나님은 사람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데 전도자의 입으로 복음을 말하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 전도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고 상급이 되겠는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려고 이 방법을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온다.

한가지 생각할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운동은 말씀 운동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전도방법보다도 다락방 전도운동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왜 말씀 운동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창조 뿐 아니라 전도도 말씀으로 하신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씀대로 하신다. 말씀이 성취되면 거기에 성경이 이루어진다. 이것 외에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하였다. 엄청난 말이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앞으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충성하라 했다. 사도바울도 말씀을 전했다고 하였다. 사도바울이 아들같은 디모데에게 한 아주 엄한 명령이다.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전도도 그렇게 하기에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절에서 9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거기서 1년 6개월동안 가르쳤다. 사역자들이 아주 눈여겨 볼 내용이다. 막 하다보면 잊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사역자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기도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사역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조금 더 축소해서 표현한 것이 언약으로 살아라는 것이다. 그러면 응답되고 정복하는 인생 살게 된다. 언약이 본래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이것은 정복이다. 사단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사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다.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 문제 뒤에 역사하는 뱀의 머리를 깨기 때문에 인생 승리하는 것이다. 방법은 하나 뿐이다. 이 한 개가 완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다.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세월 지나면 전도도 정복하고 선교도 정복하게 된다. 전에는 많이 놀렸다. 전도에.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전에는 많이 방황을 했다.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하긴 해야 하는데. 답이 나버리니까. 정복하는 것이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도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미국에도 문을 열어주시라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흑암세력을 꺾는 것이다. 남미는 100팀으로 남미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누구든지 할수 있고, 이 방향에 언제든지 들어올수 있다.

우리는 15차 캠프중이다. 이제 지나간 것은 다 두고 진짜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15차가 되었다. 왜 무엇이 진짜냐니까 우리도 사도바울같은 전도를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단어는 제자전도이고 팀 사역 전도이다. 우리도 이 성경적 전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15차가 되었다. 이것을 미국교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만일 전달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미국 교회 살아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내용을 가진 것이다. 시대적인 내용을. 복음과 성경적 전도. 이것을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을 예사로 해서는 안된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전도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있다. 하나님 나는 왜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까? 기도해야한다. 전도는 내 인생 기도 응답의 또 다른 방법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전도는 사도바울의 전도이다. 성경적 전도이다. 사도바울의 전도의 특징중, 1번은 복음 전도이다.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달해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자전도이다. 확신을 위하여 제자가 필요하다. 조직적인 전도가 되어서 계속 끝까지 가기 위해서 제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사도바울의 특징중 또 하나가 기도전도이다. 이 전도를 우리가 미국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잡은 미국 미스바 운동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전도하게 된다. 이유는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어찌피 응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누리야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어부지리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응답과 전도를 동시에 그리스도 누리미라고 한다. 응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응답이 안되면 메시지 못한다. 응답이 일년이나 이년이나 딱 멈추면 내가 긍정적인 소리 안나간다. 전에는 좋았다는 소리나 할 것이다. 옛날거 가지고 와서 예화로 하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힘 없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응답은 계속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적으로 응답을 줘서 계속 긍정적으로 큰 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응답이 멈췄다고 생각되는 분은 진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아니면 응답에 관심 없는 분도 있을수 있다. 큰 일 났다. 고쳐야 한다. 왜 그런가? 문제 해결안되는 것도 있지만 증인이 안된다. 증인은 선생님과 다르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선생님과 내용은 같다. 그게 아니다. 힘이 붙어서 진짜로 된다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 정말로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인가? 말할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답으로 줬는데.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기에 눈 뜨면 인생이 기적에 기적에 기적이 일어난다. 미국을 살려야 되지 않은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냈겠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왜 보냈겠는가?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개 있다. 세계 복음화이다. 미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이다. 축복이다. 이 나라에 보내주신 것이. 저도 4개월만에 돈을 20만불이나 날렸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 바보짓을 했다. 기본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영어가 안되면 무엇을 하든지 한인타운에서 했어야 했다. 그런데 저 UCLA앞에 가서 배워가면서 하면 뭘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전도 문이 열린다. 누리기 바란다. 전도가 되면 더 큰 응답 받는

다. 인생이 더 커진다. 이게 지속이 되면 정복하게 된다. 진정한 행복이다. 초월이다. 세상을 넘어서 세상 위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다. 그게 정복이다. 그게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답은 항상 같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 2.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중직자이다. 우리 교회 중직자가 이런 중직자 되기 바란다. 이 분들은 시대적인 전도자 사도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책에 영원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 책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게 정치적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 2절에 보면 글라우디아 황제때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에서 나가라는 명이 떨어져서 흘러오다 보니 사도바울을 만난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이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삶을 아주 다양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인도하신다. 때로는 큰 사건으로, 때로는 잔잔한 문제로, 육신적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는 정치적 사건이었다. 정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아무 관련 없었다. 왕의 결정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손해 많이 봤을 것이다. 삶의 터전을 두고 가면 손해 많이 생긴다. 고생 많이 되었을 것이다. 돈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아주 억울했을 것이다. 어디다 대고 말도 못하는 것이다. 정부를 죽이겠는가? 왕은 예사로 결정해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인간도 있고, 자살하는 인간도 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시대적인 축복으로 역전되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답이 그리스도이다. 문제를 역전시켜서 축복으로 만드는 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것을 잡아야 뒤집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교훈이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답 난다. 안 그러면 답이 안난다. 상처되어서 계속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문제로 번져간다. 이들 부부는 정부의 엉뚱한 결정 때문에 아주 결정타를 만났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다. 아마 순종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었다. 나중에는 아주 큰 부자도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만일 너무 억울해서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평생 상처에 잡혀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안했다.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면 로마황제의 결정은 브리스가 부부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사도바울에게는 생명을 건 제자를 보내주는 하나님의 결정이 왕의 결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보디발의 아내도 악하고 나쁜 여자이지만 요셉을 총리를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황제의 결정도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와서 역전되는거 한두번 봤나? 시간이 걸린다고 속으면 안된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역전을 받을만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문제 속에 있을수 있다. 문제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 안다. 그 문제에 반발하고 포기하고 변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주 안타깝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선택이다. 억울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세월지나면역전될것이라고 잡아야 한다. 그것이 지속되면 정복이 오게 되는 것이다.

마 10:30절에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것이다. 시편 139:2절에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 생각을 멀리서도 다 아신다는 것이다. 139: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 바란다.

그리스도 누리면 모든 문제 역전되고 정복된다.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이다. 이것 때문에 역전되고 증인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언약이 되기 바란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부처럼 시대적인 전도자들 다 되기 바란다. 이런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임하기 바란다.